



보도시점 2026. 5. 15.(금) 09:30 배포 2026. 5. 15.(금) 08:30

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전략 핵심과제 등 추진방향 중간점검

- 산업별·부문별 녹색전환(GX) 추진방향, 민간 연계 프로젝트 등 논의
- 상반기 내 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전략 수립·발표 예정

정부는 5월 15일(금) 오전 9시 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.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협의체* 관계부처,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 및 업종별 주요 기업이 참석한다.

* 재경부 제1차관(주재), 기후부 제2차관(공동주재), 과기부, 산업부, 국토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노동부, 중기부, 기획처, 금융위, 산림청 등 12개 부처

정부는 지난 1월 민관합동 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추진단을 출범하고, 녹색전환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「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전략」을 마련하고 있다. 이번 회의는 이 전략의 준비 상황을 점검·공유하고,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 보완 및 추가 발굴을 요청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먼저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전략 준비상황을 점검한다. 주요 논의사항은 그간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제기된 △산업별·부문별 녹색전환 추진방향, △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(R&D) 과제, △재정·세제·금융 등 지원방안 마련, △부처 간 협조 필요사항 등이다.

다음으로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전략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,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녹색전환(GX)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산업계의 녹색전환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.

또한, 대한상공회의소가 그간 철강·석유화학·시멘트·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 협회·단체와 소통을 통해 종합한 핵심 선도과제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도 공유·논의한다.

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“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이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발판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”이라고 언급하였다. 특히 “녹색전환의 성공이 기업의 혁신역량에 달려있는만큼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”을 강조하며,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.

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“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와 전력 주도권 확보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부상”했다며, “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”이라고 강조했다.

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·민간협의체와 지속 소통하여, 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 전략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	책임자	과 장 김현영 (044-215-4581)
	녹색전환경제과	담당자	사무관 안광선 (044-215-4586)
	기후에너지환경부	책임자	과 장 김병훈 (044-201-6403)
	K-GX 기획단	담당자	사무관 권재현 (044-201-6404)